

# 올바른 인식 필요 「과학」신뢰하는



丙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독자 및 농업인과 농업관련기관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을 위협하는 요소가 적지 않은 가운데 지난해에는 추곡수매제가 폐지되었고, 쌀값 하락에 이은 쌀 협상국회비준 파동과 연말에 닥친 폭설피해 등 농심의 상심이 적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새해 들어 심상찮은 FTA한파가 불어오는 듯 합니다. 한·칠레보다 5배 이상, 한·아세안 보다는 16배 이상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한·미 FTA' 한파가 오는 4월 체결을 목표로 몰아치고 있어 농업인들의 분노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돌이켜 보면 농업의 전도가 험로로 바뀌지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최근에는 설상가상으로 농업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농업과 농업인을 골칫거리쯤으로 바라보는 듯한 측면이 적지 않아 우리 농업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을 향한 희망을 잃는 것보다 더한 절망은 없습니다. 현대는 다변화 사회입니다. 인류 최후의 승자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이란 말이 있듯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또한 농업·농촌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현대과학을 슬기롭게 이용하는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농업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인성과 과학이라는 도구로 변화에 적응하며 번영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일

부에서는 아직도 과학을 부정하고 의심하며 천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친환경농업만이 우리 농업의 만능인 양 확산되어 가는 분위기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는 우리 농약 산업의 행보가 험겨워 보이지만, 농약은 이미 그 범주에서 작지 않은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농약의 올바른 사용과 안전농산물 생산은 목표가 아니라 기본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도시소비자는 물론 소비자단체들과의 교류확대를 통한 이해의 폭을 더 넓혀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안전성 논란의 중심에 농약이 자리하는 불행을 나누어 가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농약의 가치를 스스로 폄하하는 잘못된 관행이나 부적절한 유통행위도 자제해야 하겠습니다.

창립 33주년을 맞은 우리 협회는 올해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작물보호제로서의 농약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작물과 환경을 보호하는 「한국작물보호협회」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하는 한편 준회원 제도를 도입, 작물보호 산업 관련기업이 작물보호제로서의 올바른 이미지 제고와 농약안전성 홍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했습니다.

이에 회원사 여러분은 물론 유관기관 및 언론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애정 어린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근거 없이 막연히 소비자들이 느

끼는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선 농약의 유익성과 안전성에 대한 수도권 지하철 광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비자 단체 종사자 및 방송작가를 초청, 세미나 및 선진 연구·제조시설을 견학토록 함으로써 올바른 인식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각종 교양강좌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농산물 구입시 막연한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하는 도심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강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인식 전환 및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통한 조기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올바른 인식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및 올바른 사용법 계도를 위한 전국 농과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도 지속적으로 참여, 농약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는 또 그동안 기술상의 문제로 제작하지 못해 민원의 중심에 있었던 통합농약혼용가부표를 제작, 배부함으로써 오·남용 예방은 물론 사용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인간에게 매우 친근한 동물이며 충직하고 영리한 기예의 상징인 개의 해를 맞아 모두가 하나 되며 풍요롭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됨으로써 우리 농업분야에 희망의 소리가 메아리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2006. 1 한국작물보호협회 회장 염병만